

주일 예배 순서

- 성탄 후 제1주/송년주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역대상 16:23-29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28장(새 28장)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53번(새 87번)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돌아보니 주님 앞에 흠과 티로 얼룩진 부끄러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았고, 내 형제자매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정욕과 탐심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려던 자아가 살아 있었음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이러한 저희를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주의 것이오니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요한일서 3:18-24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진정한 사랑이 가져다 주는 결과

봉 헌(offering) 71장(새 50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Hymn) 518장(새 463장)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송구영신 예배가 오늘 저녁 8시에 있습니다.
3. 장영철 할아버지께서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미망인 되시는 장석순 할머니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4. 오늘 친교 후 믿음 속회로 모입니다.
5. 2024년 1월 둘째 주일(14일) 친교 후에 합동임원회로 모입니다.

<기도제목>

-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영어권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조동천선교사님, 이성구목사님)

<이 달의 속회 적용점> 야고보서 4:11-12

성경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은 스스로 유일한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며 교회를 헤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겸손과 사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 그런 마음이 드는 자신 안에 똑같은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부터 고치고 변화되는 경건의 훈련을 합시다.

<말씀묵상> 요한일서 3:18-24

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20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1.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8-22절)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2.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24-25절) 나에게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물론 이런 부분도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주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마음을 갖고 행동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은 과시를 위한 보여주기식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고 조건적으로 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타적인 순전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랑할 때마다 자신이 주 안에, 주님이 자신 안에 거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영적으로 느끼고 아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껍질만 가지고 있는 종교인으로 전락합니다. 온갖 외적인 경건의 모양은 다 갖췄을지라도 경건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향기 없는 화려한 조화(造化)처럼 될 수 있습니다. 조화는 멀리서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게 되면 가짜임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종교인이 된 그리스도인은 가까이 갈수록 그의 실체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이기심에 근거한 거짓 사랑이 도사리고 있지 않은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롬 8:31-39), 그 사랑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지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